

## 백양사에 고하 송진우 선생 역사기록 현판 설치

입력시간 : 2019. 07.05. 00:00



고하 기념사업회(회장 김창식)는 5일 백양사 입구와 청류암에 고하 송진우 선생 역사기록 안내 현판을 설치한다.

청류암은 독립지사들과 전봉준 장군 우물터가 있어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번 역사 기록물은 백양사 주관으로 설치되며, 백양사와 청류암 그리고 기념사업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한편 고하 선생의 애국심을 후세에 널리 알리는 사업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사업은 담양의 고하 선생 생가와 기념관을 운영해 온 전남대 사범대학 송진한 교수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



한편 고하 송진우(1890년5월8일~1945년12월30일)선생은 일제식민지시대와 광복후 건국과정에서 독립운동가, 교육가, 언론인, 정치가다. 고하 선생은 소년기 수학 과정에서 1905년 장성 백양사에 들어와 한학자 김직부 선생으로부터 한학과 동학의 이념을 배웠다. 청류암은 전봉준 장군이 마지막 밤을 보낸 곳으로, 고하 선생도 이곳에서 망국의 한을 품고 공부하던 곳이다. 고하 선생은 일본유학을 마치고 귀국해 중앙학교교장으로서 1919년 3·1일 독립운동을 배후 주동하다 민족대표 48인의 한사람으로 투옥, 1년 반의 옥고를 치렀다.

1921년 동아일보 사장 취임 후 광복시까지 국내 독립운동의 구심점으로 신문을 통해 독립을 위한 민족의 힘과 열을 고취했다. 소년시절 수학 이후 그는 청류암을 다시 여러 차례 찾았고 평생의 동지 백관수, 김병로, 장덕수와도 이곳에서 수차 독립의 방략을 논의 하는 등 인연을 맺고 있다.

장성=최용조기자 [young671221@srb.co.kr](mailto:young671221@srb.co.kr)

최용조 [최용조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는 무등일보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onam.co.kr>)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

문의 메일 : [root@honam.co.kr](mailto:root@honam.co.kr)